

보성출신 광부화가 황재형 전시회 ~ 15일~ 12월 8일까지 상록전시관



“너희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묻고 싶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막장을 스스로 찾아 들어간 보성 출신 민중미술화가 황재형(61). 그는 30대 초반 이던 1982년 물감을 쟁겨 태백으로 향했다. “내 삶은 거기부터”라는 생각이 그를 이끌었다.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진 황량한 관자촌, 겹겹이 해버린 마을 하천, 막장 안에서 석탄 가루 덮인 차디찬 도시락을 먹는 광부들. 화가 황재형을 거기로 이끈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었다. 광부들이 막장 안에서 노란 불빛에 의지하듯 관자촌에

안하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곳에 대한 편안함 덕분이겠죠. 길에서 쓰러져도 누군가가 집에 데려줄 것만 같습니다. 고향에서 여는 전리라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네요.”

‘월 흙과 땀 땅’, 태백으로 들어가 광부 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것들을 그렸던 그는 개인전을 할 때마다 이 제목을 고집했다. 월 흙은 있어도 땀을 누릴 땅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과 연민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올해 ‘삶의 주름, 땀의 무게’로 전시 제목

를었다. 하지만 석탄 가루 속에 누워 있는 굴 딱지 같은 집에서는 파스한 체온이 묻어났다. 삶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노동의 숭고함이 느껴졌다. “너무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불편함과 경각심을, 불편한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말이 머리를 스쳤다.

“노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탄광과 광부는 산업화 과정의 한 축을 일군 뿌리예요. 고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이 ‘삶의 주름과 땀의 무게’를 배반하는 것이라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밭을 일구고, 땀밭을 기어가며 흘린 땀으로 우리를 키웠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글썽이는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자리’, 항상 안쓰럽게 우리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그린 ‘존엄의 자리’ 등 그림에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황재형은 땀으로 키워낸 자식들에게 소외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우리네 현실을 꼬집고 싶었다. “너희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개막식에서 무슨 말을 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 소년은 고향이 싫어 떠났는데 먼길을 가고, 가고, 가도 거기에는 고향의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껏 내가 살아가면서 보아온 것은 고향이었습시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데뷔작인 ‘황지330’부터 근작까지 모두 76점이 전시된다. ‘황지330’은 광도 매물 사고로 사망한 광부 김봉춘씨의 작업복을 극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눈물을 글썽이게한다. 10여년에 걸쳐 제작한 500호 대작 ‘백두대간’과 탄광



‘아버지의 자리’

광도 내에서 광부가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외눈박이의 식사’, 관자촌 등 작품이 인상적이다.

전시 개막은 15일 오후 5시다. 개막식에는 그의 오랜 친구인 소리꾼 장사익이 함께할 예정이다. 23일 오후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도 갖는다.문의 062-613-53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재은 감독, 관객과의 대화

18일 광주극장



서울 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 시티 : 흙’의 정재은(사진)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갖는다.

광주극장은 오는 18일 오후 7시 ‘말하는 건축 시티:흙’ 상영후 정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관객과의 대화는 ‘나무심는 건축인’ 박홍근 건축사 사회로 진행되며 김인호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말하는 건축 시티 : 흙’은 지난해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를 제작한 정재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2012년 문을 연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영화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터진다, 웃음 폭탄

연극 ‘라이어 1’ 21~24일 5·18기념문화센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유발한다. 쉴 새 없이 웃음 폭탄이 터지는 코믹 연극 ‘라이어 1’이 광주무대에 오른다. 21일~24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 오후 3시·6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주진모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라이어1’은 1999년 국내 초연후 1만 8000회,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다.

주인공은 바바라와 메리 사이에서 두 집살림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 철두철미한 이중생활을 즐기던 그에게 위기가 닥친다.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형사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여기에 이층에 사는 실업자 친구 스탠까지 개입되면서 일은 점점 악화일로로 걷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상황을 점점 꼬여만 가고, 존 스미스의 이중생활이 날 날이 늘어날 위기에 처하는데...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짜임새 있는 구성과 계속되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은 폭소를 유발하고 시종일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편 오는 12월16일부터 22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라이어 3’이 공연될 예정이다.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신임 지휘자에 이현세씨

광주시립교향악단 신임 지휘자로 이현세(53·대구가톨릭대 관현악과 부교수·사진) 현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14일 “상임지휘자 특별 위촉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자격과 지휘능력을 검증한 후 이현세씨를 신임지휘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 지휘자였던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와 단원들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내 유명 지휘자를 중심으로 영업작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대 음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씨는 일리노이 대학원, 미시간 주립대학원 마스터클래스에서 수학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미시간 그랜드 벨리 주립대학교 지휘 교수를 역임했으며 대구 시립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지냈다.

계약 조건은 전임인 루드비히(연 10만달러, 교토비 2000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지휘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매년 10회 정기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 높은 가격에 ! 바로 처분에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 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물탈등)

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만원

연락처 : 017-602-1948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임)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